

儀禮的 觀點에서 甘露楨畫와 水陸畫의 內容 比較

연 제영(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 민속학전공)

I. 들어가는 말

불교는 인간의 삶은 자신이 지은 業에 따라 報를 받는다는 因果應報論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인과응보론은 지옥도, 이귀도, 축생도, 수라도, 인간도, 천상도 등 여섯 가지의 삶을 되풀이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六道輪廻思想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는 육도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탈의 방법으로는 팔만사천의 길이 제시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 공덕사상이 있다.

불교의례 가운데 追薦儀禮는 亡者의 이름으로 널리 공양을 베풀어 공덕을 짓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인과론에 근거하여 내세에 보다 좋은 몸을 받거나 극락왕생을 위해 齋를 設하여 善業의 공덕을 짓는 것이며, 인연론에 근거하여 死者의 영혼이 齋의 공덕으로 생전에 지은 惡業을 소멸케 하는 구조에서 齋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追薦儀禮는 인과론과 인연론에 근거하여 輪廻說과 功德思想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겠다.

추천의례에 사용되는 불화의 명칭을 한국에서는 감로탱화라 칭하며, 중국에서는 수륙화라 칭하고 있다. 명칭의 차이를 보이는 감로탱화와 수륙화는 구성형식과 그려진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감로탱화와 수륙화에 그려진 내용의 비교를 통해 그 변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감로탱화에 대한 연구는 처음 일본인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감로탱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술사적 관점에서 도상의 형식과 양식적 특징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가 대부분이다.²⁾ 또한 감로탱화의 종교화적 특성에 주목하여 의례적 관점의 연구도 이루어졌다.³⁾ 그리고 수록제에 관련된 연구는 다소 이루어졌으나⁴⁾ 수록화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당히 미미한 편이다.⁵⁾

- 1) 關野貞, 『朝鮮の建築そ藝術』(東京: 岩波書店, 1941, 195쪽; 熊谷宣夫, 「朝鮮佛畫徵」, 『朝鮮學報』, 1967, 63~65쪽; 渡邊哲也, 『韓國의佛畫 甘露幀畫』(서울: 螢一出版社, 1975).
- 2) 金承熙, 「朝鮮後期 甘露圖의 圖像研究」(서울: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朝鮮時代 甘露圖의 圖像研究」, 『美術史學研究』 196號(서울: 한국미술사학회, 1992); 「감로탱의 圖像과 信仰儀禮」, 『감로탱』(서울: 예경, 1995); 「宇鶴文化財所藏 甘露幀畫 -圖像의 意味와 畫面 構成을 중심으로-」, 『丹豪文化研究』 제5권(용인: 龍仁大學校 傳統文化研究所, 2001), 7~39쪽; 「甘露幀畫에 나타난 人間相의 分類」, 『조선의 風俗畫』(서울: 한국박물관회, 2002); 姜友邦, 「興國寺 甘露圖의 圖像과 樣式」, 『美術史學誌』 제1집(서울: 國立中央博物館, 1993); 「감로탱의 樣式變遷과 圖像解釋」, 『감로탱』(서울: 예경, 1995); 尹凡牟, 「韓國佛畫의 韓國性 問題 -甘露幀畫의 下段 欲界部分을 중심으로-」, 『實學思想研究』 14輯(이리: 母岳實學會, 2000); 林玲愛, 「朝鮮時代 甘露圖에 나타난 引路菩薩」, 『講座 美術史』 7號(서울: 韓國佛教美術史學會 · 韓國美術史研究所, 1995); 유마리, 「朝鮮朝 甘露王圖의 研究」, 『朝鮮朝 佛畫의 研究 (2) - 地獄界 佛畫 -』(서울: 한국정신문화원, 1993).
- 3) 延濟永, 「甘露幀畫의 意味 考察」, 『역사민속학』 제19호(서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337-372쪽; 「甘露幀畫에 나타난 追薦對象의 持續과 變化」, 『역사민속학』 제21호(서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253-287쪽.
- 4) 尹武炳, 「國行 水陸齋에 對하여」, 『白性郁博士頌壽記念 佛教學論文集』(서울: 東國大學校, 檀紀4292年); 洪潤植, 「李朝佛教의 信仰儀禮」, 『崇山朴吉眞博士華甲紀念 韓國佛教思想史』(서울: 圓佛敎思想研究, 1975); 金容祚, 「朝鮮前期 國行祈禳佛事 研究」(서울: 東國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90); 李英華, 「朝鮮初期 佛敎儀禮의 性格」, 『清溪史學』 10輯(서울: 韓國精神文化文化研究院清溪史學會, 1993); 韓祐勳, 『儒敎政治와 불교 -麗末鮮初 對佛敎政策-』(서울: 一潮閣, 1993); 徐閔吉, 『韓國密敎思想史』(서울: 불광출판부, 1995); 池斗煥, 『朝鮮前期 儀禮研究』(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본고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감로탱화와 수륙화의 내용 비교 방법으로는 종교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적 측면과 형태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기능적 측면에서 의례적 관점의 검토로 중국과 한국의 수륙제 설행 史實을 통해 齋의 對象을 확인하고, 설행 形式을 통해 탱화와의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형태적 측면에서는 감로탱화와 수륙화에 그려진 내용을 밝혀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수륙의례의 변별성을 확인하고, 감로탱화와 수륙화의 상징성을 고찰하여 한국 수륙제의 특징을 밝히는데 기초하고자 한다.

II. 水陸齋 設行 史實과 儀文을 통한 對象 분석

불교의례에서 水陸齋는 의례의 對象과 機能, 그리고 形式적 측면에서 보면 死者儀禮, 追薦儀禮, 施食儀禮에 해당된다. 이러한 水陸齋는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과 『佛說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을 所依經典으로 하고 있으며, “석가모니의 제자 阿難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餓鬼가 그에게 음식을 구하였다. 이에 아난은 焰口餓鬼가 일러주는 대로 시식의례를 설행하여 모든 아귀에게 음식을 베풀어 구도하였다.”⁶⁾고 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1. 중국의 수륙제

5) 洪起龍, 『元·明 水陸法會圖 研究』(北京: 中央美術學院 博士學位論文, 1997); 「中國 元·明代 水陸法會圖에 관한 考察」, 『美術史學研究』 219號(서울: 韓國美術史學會, 1998), 41-85쪽.

6) 『佛說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高麗大藏經』 第13卷, 1251b)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高麗大藏經』 第36卷, 963b)

먼저 수륙제 설행 史實을 살펴보자. 중국에서 수륙제는 梁 武帝(502~549)가 天鑑四年(505)에 처음으로 설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梁나라 武帝의 꿈에 어떤 神僧이 말하기를 “六道 四生の 중생들이 한없는 苦痛을 받고 있거늘 어찌하여 水陸齋를 베풀어 法界含靈을 제도하지 않는가?” 하는지라 무제 모든 승려에게 물었으나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다. 오직 誌公法師가 무제에게 권하기를 “널리 經論을 찾아보면 필연코 因緣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무제 이를 받아들여 大藏經을 보내 (지공이) 쌓아 놓고 晝夜로 披覽하다가 水陸儀文을 삼년 만에 완성하였다. ... 天鑑四年 二月 十五日에 金山寺에 나가서 儀文대로 齋를 設하였다. 황제는 그 자리에서 詔勅을 내려 僧祐律師에게 水陸儀文을 널리 펴게 하였다.⁷⁾

이후 唐나라 고종 咸亨(670-673) 중에 道英선사가 北山寺에서 수륙회를 거행 하였다. 그리고 宋나라 이래로 수륙도량은 전국에 걸쳐 설행되었다. 특히 戰亂 이후 에 유행하였는데, 조정과 민간에서 자주 범회를 열어 戰爭에서 죽은 亡靈들을 薦度하였다. 北宋 神宗 元豐(1078-1085) 중에 佛印이 賈人을 위하여 금산사에서 水陸道場을 크게 열기도 하였다. 南宋 高宗 紹興21년(1151)에 慈寧太后는 眞歇을 위하여 杭州 崇先의 顯孝寺에 수륙도량을 설치하였으며, 같은 때에 王機宜는 죽은 동생을 위하여 蔣山 太平에 흥국사를 지어 수륙도량을 설치하였다. 孝宗 乾道9년(1173)에는 史活이 月波山에 四時水陸을 지었다. 이 때 효종이 ‘水陸無得道場’이라는 寺額을 하사하기도 하였다.⁸⁾ 또 한 월파산 부근의 尊教寺에서 승려 3000명이 상주하며 志磬법사를 청하여

7) 『佛祖統紀』 卷三三, “水陸齋 梁武帝夢 神僧告之曰 六道四生 受苦無量 何不作水陸大齋 以拔濟之 帝以問 諸沙門 無知之者 唯誌公勸帝 廣尋經論 必有因緣 帝即遣迎大藏 積日披覽 創立儀文三年 ... 天監四年 二月十五日 就金山寺 依儀修設 帝親臨地席 詔祐律師 宣文.” 『續修四庫全書』 1287卷(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440쪽.

8) 山西省博物館, 『寶寧寺明代水陸畫』(成都: 文物出版社, 1988), 1-7쪽 참조.

『水陸新議』를 만들었다.

다음으로 수록의례와 관련한 儀文을 살펴보기로 하자. 明代 株宏은 志磐의 『水陸新議』를 기초로 하여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⁹⁾ 6권을 지었는데, 이를 약칭하여 『水陸儀軌』라 한다. 清代에 와서 儀潤은 株宏의 儀文에 의거하여 『法界聖凡水陸普度大齋勝會儀軌會本』 6권을 지었는데, 약칭하여 『水陸儀軌會本』이라 한다. 그리고 咫觀이 주광의 의문에 상세한 논술을 增補하여 『法聖凡水陸大齋普利道場性相通論』 6권을 완성하였는데 약칭하여 『雞園水陸通論』이라 칭한다. 이후 法裕가 『水陸儀軌會本』 4권을 만들었다.¹⁰⁾ 이처럼 몇 차례에 걸쳐 증보 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儀文에서 제의 대상을 상당과 하당, 二位로 소칭하고 있다.¹¹⁾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上位의 내용으로는 온 범계에 항상 계시는 모든 佛¹²⁾·法¹³⁾·菩

9)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續藏經』 第七十四卷, 一四九七冊), 上位 789-792쪽, 下位 800-806쪽 참조.

10) 홍기용, 「中國 元·明代 水陸法會圖에 관한 考察」, 『美術史學研究』 219號 (서울: 韓國美術史學會, 1998), 46쪽.

11) 『水陸儀軌會本』(高雄: 佛光山寺, 中華民國八十四年). 上堂 第一卷 81-108쪽, 下堂 第二卷 219-290쪽 참조.

12)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卷第二, ‘行上堂召請法事’
“清淨法身 毘盧遮那佛, 圓滿報身 盧舍那佛, 千百億化身 釋迦牟尼佛, 西方極樂世界 大慈大悲 阿彌陀佛, 兜率天宮 一生補處 當來下生彌勒佛, 過去大通智勝佛等 一切過去諸佛, 現在淨華宿王智佛等 一切現在諸佛, 未來華光佛 華足安行佛等 一切未來諸佛, 東方善德佛等 十方法界一切諸佛, 過去莊嚴劫 始自華光佛等千佛, 現在賢劫 始自拘留孫佛等千佛, 未來星宿劫 始自日光佛等千佛, 十方法界 一切諸佛全身舍利寶塔.”

13)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卷第二, ‘行上堂召請法事’
“大方廣佛華嚴經 梵網戒經 諸經法寶, 鹿苑會中 佛集本行四阿含等經 諸經法寶, 方等諸會 淨名金光明等經 諸經法寶, 大品般若 仁王金剛般若等經 諸經法寶, 大乘妙法蓮華經 大般涅槃經 諸經法寶, 專談淨土 觀無量壽佛經等 諸經法寶, 五時所說大小兩乘 諸部律論 諸經法寶, 西天此土三乘聖賢 說經造論 著述疏記, 龍宮所秘 竺土未來 諸經律論 諸經法寶, 十方國土 水鳥樹林 塵說利說

薩¹⁴·緣覺¹⁵·聲聞¹⁶·教法을 傳한 禪律의 모든 宗師와 祖師¹⁷· 불교의 論을 밝히 불법을 널리 퍼던 五神通仙¹⁸· 十大明王¹⁹· 舍利, 戒壇, 佛塔, 伽

一切法音.”

- 14)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卷第二, ‘行上堂召請法事’
 “文殊師利八萬大士 普賢大師 無邊菩薩, 觀世音 大勢至 清淨海衆 諸大菩薩, 藥王 藥上 法華經中 諸大菩薩, 賢首菩薩 華嚴經中 諸大菩薩, 善財歷參 五十三善知識 諸菩薩, 信相菩薩 金剛明經中 諸大菩薩, 兜率內院 無著天親 諸大菩薩, 極樂國土 一生補處 諸大菩薩, 五時法會 助宣佛化 諸大菩薩, 藏通別圓 所歷地位 一切菩薩.”
- 15)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卷第二, ‘行上堂召請法事’
 “仁王護國經中 八百萬億 大仙緣覺, 佛出世時 從山中來 五百獨覺, 佛法滅後 一時出現 七百俱胝獨覺, 出有佛世 聞法得道 諸大緣覺, 出無佛世 自然悟道 諸大獨覺, 出無佛世 部行麟喻 諸緣覺獨覺, 具相不具相 諸緣覺獨覺, 現通不現通 諸緣覺獨覺, 說法不說法 諸緣覺獨覺, 通教八地辟支佛 藏教辟支佛.”
- 16)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卷第二, ‘行上堂召請法事’
 “苑苑先度五比丘 最後須跋陀羅 諸阿羅漢, 世尊高弟 大迦葉阿難陀等 十大弟子, 靈山聞法 大比丘衆萬二千大阿羅漢, 靈山得記 學地無學地 諸大聲聞衆, 五時聞法 學地無學地 諸大聲聞衆, 世尊滅後 結集三藏 阿難陀等 諸阿羅漢, 住世十六大阿羅漢 萬六千九百弟子衆, 天台山方廣聖寺 住世五百大阿羅漢, 慧俱無礙三解脫 信行法行六種阿羅漢, 通教體法已辨 藏教學無學內外七賢衆.”
- 17)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卷第二, ‘行上堂召請法事’
 “西天傳教 迦葉龍樹師子尊者等 二十三祖, 北齊尊者 南嶽禪師 天台智者大禪師, 章安尊者 荊溪尊者等九祖 四明法智大師, 禪宗達磨圓覺禪師 下及六祖等 諸大禪師, 臨濟 潯山 洞山 雲門 法眼 五宗諸大禪師, 廬山蓮社圓悟法師 歷代往生淨土諸法師, 賢首教主 國一法師 清涼圭峯 諸大法師, 慈恩教主 大乘法師 瑜伽密教 灌頂國師, 律宗十祖 南山澄照律師 記主大智律師, 譯經摩騰竺法蘭 求法奘三藏等諸法師.”
- 18)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卷第二, ‘行上堂召請法事’
 “過去十方諸佛 往昔因地同行 五神通仙, 釋迦文佛 往昔因地同行 千聖王五神通仙, 釋迦文佛 往昔同行 忍辱五神通仙, 護育釋種瞿曇仙人 占相太子阿私陀仙, 色界諸天 下生人間 爲受道者 五神通仙, 華嚴會中善知識衆 毗目瞿沙一萬大仙, 鹿野園中 輾法輪處 往昔波羅奈仙人, 請雲雨會 那羅他九萬九千 五神通仙, 方等會上 阿瑟吒迦等六十八大仙人, 諸國土中 攝諸呪術 造五明論 諸大仙人.”
- 19)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卷第二, ‘行上堂召請法事’

藍, 삼귀의 오계를 받은 모든 불제자²⁰⁾ · 수록재를 만들어 유통시키고 儀文을 만들어 법을 세운 十大士²¹⁾ 등이 등장한다.

下位의 내용으로는 四空四禪 六欲天 日月星辰 등 하늘의 聖衆 · 五嶽四瀆의 복덕을 관장하는 모든 신 · 제왕후비 문무관료 儒宗賢哲 仙道隱者 · 農工商 醫卜雜流 貴賤男女 十類人倫 · 胎卵濕化 四類受生 五趣所攝, 山間海底 阿修羅衆 · 염구귀왕을 비롯한 모든 아귀 · 閻摩羅王과 十王의 일을 맡아보는 권속 · 八熱八寒의 모든 지옥중생 · 鐵圍山에 있는 五趣의 鱗甲羽毛 十類畜生 · 칠칠일내 몸을 받지 못하고 떠도는 중음신 · 성황신 · 伽藍住居六神 · 齋를 베푸는 시주의 선망부모 · 開山이래 선망망령 · 당일 천도대상 · 나라의 君臣과 后妃 등 고훈 · 士農工商 一切人倫 고훈 · 戰陣에서 죽은 고훈 · 刑獄을 만나 죽은 고훈 · 원한을 품고 저주하다 죽은 고훈 · 파도에 휩쓸려 빠져 죽은 고훈 · 도적을 만나 죽은 고훈 · 邪鬼妖精에 의해 죽은 고훈 · 전염병을 앓

“大威德不動尊等十大明王 穢迹金剛聖者, 華嚴會中 妙燄海大自在天王等諸天王, 妙莊嚴宮大梵天王 忉利天宮帝釋天王, 多聞天王 持國天王 增長天王 廣目天王, 摩訶天女 大功德天 大辯天 天母摩利支天, 金剛密迹神王 北天大將 散脂修摩尊天, 南天上將韋馱尊天 菩提樹神善女尊天, 大地主母堅牢地神 歡喜藥叉將 鬼子母天, 散脂大將 所領二十八部威德大權天神, 法華會上 從佛聞法 人非人等 天龍八部.”

20)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卷第二, ‘行上堂召請法事’

“護佛舍利 般支分婆多祈利等 四大軍主, 護戒壇 堅固光曜淨雲音等 十二大神王, 護佛塔 修利健陀摩尼跋陀等 五大神王, 護伽藍 美音梵音天鼓歎妙等 十八大神王, 護震旦國 毗首羯摩天子 迦毗羅大將 雙瞳目天女 一切神衆, 護受三歸彌栗頭不羅等 護五戒 察芻毗訖他尼等 諸大神王, 護比丘 軻彌迦羅移唎隸等 百七十二大神王, 佛滅度後 護佛弟子 多賴哆等 七神王, 守鎮宮宅 東方阿脩訶等 五方上首神王, 六齋觀察人間四天王 各九十一子 各八大天將 四天提疾使者.”

21)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卷第二, ‘行上堂召請法事’

“發揚施食 流通至教 阿難陀尊者聖師, 最初示夢 勸興水陸 梁朝神僧聖師, 勸發製水陸儀 梁朝誌公尊者聖師, 製水陸齋儀 國主救世菩薩梁武皇帝, 最初建會 秉法宣文 梁朝祐公律師, 中興水陸齋法 唐朝法海英公禪師, 摠持感驗 稱名樓至 宋朝佛印禪師, 詳定舊儀 申明齋法 長蘆曠公禪師, 修崇齋法 繪像製讚 太師蘇文忠公, 祖述舊儀 製文行世 東川節推楊公.”

다 죽은 고훈·호랑이에 물려 죽은 고훈·아이를 낳다 죽거나, 젓이 없어 굶어 죽은 고훈·살해된 모든 生靈 등이 등장한다.

이상에서 수록의례의 대상이 불보살과 바라문신, 그리고 육도윤회의 孤魂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수록의식에 내어 걸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륙화가 수록도량에서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도량의 형식과 설행 형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水陸道場은 3일이나 7일, 때로는 49일간 설행하였는데 일반적으로는 7일간 설행되었다. 본고에서는 7일간 설행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 보겠다.

수륙도량은 內壇과 外壇으로 구분되며, 내단의 활동이 중심이 된다. 내단의 활동은 水淨, 結界, 遣使發符, 請上下堂, 供上下堂, 奉浴, 授戒, 施食, 送聖순으로 이루어진다. 외단은 大壇, 諸經壇, 法華壇, 淨土壇, 華嚴壇, 瑜伽壇 등 6개의 단을 설치한다. 이 가운데 유가단이 施食壇이 된다. 의식의 진행순서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날, 외단에서 法水を 戒壇에 골고루 뿌려 계단이 淨土가 되게 하는 洒淨을 행한다. 내단에서는 法界와 俗界를 나누어 外界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結界를 행한 후, 위로는 佛·菩薩·神道·諸天에게 공양을 올리고, 아래로는 六道四生을 불러 法會에 참여하도록 하는 遣使發符를 거행한다. 이때 대웅보전 좌측 앞에 ‘修建法界聖凡水陸普度大齋勝會功德宝幡’이라고 쓴 기를 세운다.

둘째 날은 上堂을 청한다. 즉, 佛·菩薩·緣覺·聲聞·明王·天龍八部·婆羅門仙·梵王·帝釋·二十八天·盡空宿曜尊神을 청하여 공양을 올린다. 그런 후에 목욕통을 마련하여 향수를 넣고 上堂의 제신을 목욕시키는 奉浴을 행한다.

셋째 날에는 諸神을 上堂에 모시는데 정 중앙에 비로자나불·석가모니불

· 이미타불을 모시고 좌우에 여러 佛·菩薩을 모신다. 즉 이때에 상당에 해당하는 水陸畫를 내어 건다.

넷째 날은 下堂을 請한다. 이때에 五岳河海大地龍神·古德人倫·阿修羅·冥官眷屬·地獄衆生·幽魂滯魄·無主無依諸鬼神衆·法界旁生 등 下堂에 해당하는 수륙화를 내어건다. 그리고 하단의 제신을 奉浴시키고, 戒律을 강연한다.

다섯째 날에는 信心銘을 독송하고, 下堂에 공양한 후 승려에게 공양을 한다.

여섯째 날에는 下堂에서 직접 법회를 열고 放生을 한다.

일곱째 날에는 上·下堂에 공양하고, 태워버려야 할 문서나 부적이거나 서찰 등을 태우며, 상당의 聖과 하당의 귀신들을 보내는 送聖儀式으로 법회는 끝을 맺게 된다.

이와 같은 절차로 수륙의례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륙화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륙화에 그려진 내용이 수륙의례에서 소청되는 대상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상당에 해당하는 제신과, 하당에 해당하는 고힌의 자세한 내용은 III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미루어 둔다.

2. 한국의 수륙제

우리나라 수륙제의 기원을 살펴보면 수륙제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의례의 성격적 측면에 입각하면 신라 진흥왕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²²⁾

22) 『三國史記』卷 第四, 新羅本紀 眞興王 三十三年. “冬十月二十日 爲戰死士卒 設八關筵會於外寺七日罷”에 대하여 이능화는 수륙제로 보고 있다. “新羅八關會 初爲戰死士卒而設也. ... 所以爲水陸戰死士卒 追薦冥福 以祈超脫災厄難關 陞遷安樂刹土也 後世之設水陸齋會者. 卽古八關會之遺意也.” 이능화, 『朝鮮佛教通史』, 新文館, 大正七年(서울: 민속원영인, 2002), 하권 291쪽.

그러나 문헌 기록상 최초의 수륙제는 고려 광종 19년에 시행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무진 19년, 승려 惠居를 國師로 삼고 坦文을 王師로 삼았다. 왕이 아첨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을 죽였으므로 내심으로 가책을 받게 되었다. 이리 하여 자기 죄악을 덜기 위하여 齋會를 광범히 가지게 되니 많은 무뢰배들이 가짜로 出家하여 배부르게 먹을 것을 생각하고 모여 들었다. 이따금 떡, 쌀, 콩, 시탄 등을 가지고 서울과 지방의 길거리에서 일반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수 없이 많았다. 또 放生所를 많이 설치하여 놓고 부근 사원에서 불경을 강연하였다. 동물을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고 왕궁에서 쓰는 고기도 시장에서 사들였다.²³⁾

위 인용문의 사실을 수륙제로 볼 수 있는 근거는 『高麗史』 列傳 崔承老의 「時務二十八條」 두 번째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光宗) 참소를 믿고 무죄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불교의 因果應報說에 미혹되어 자기의 罪業을 제거하고자 인민의 고혈을 짜내서 불교 행사를 많이 거행하였으며, 혹은 毘盧遮那懺悔法을 베풀거나, 혹은 球庭에서 승려에게 음식을 먹이기도 하였으며, 혹은 歸法寺에서 無遮水陸會도 베풀었습니다. 메양 부처에게 재를 올리는 날에는 반드시 乞食僧들에게 밥을 먹였으며, 또는 內道場의 떡과 실과를 가져다가 거지에게 주었으며, 혹은 穴口山과 摩利山 등처에 새로 못을 파서 魚梁을 設하고 물고기를 放生하는 장소로 만들었으며, 1년에 네 차례씩 사신을 파견하여 그곳의 사원들로 하여금 불경을 개강하게 하고, 또한 살생을 금지하며 궁중에서 쓰는 육류를 도살부에게 도살시키지 않고 시장에서 사다가 쓰게 하였습니다. ²⁴⁾

23) 『高麗史』 卷 第二, 世家 第二 光宗 戊辰 十九年. “以僧惠居爲國師坦文爲王師王信讒多殺內自懷疑欲消罪惡廣設齋會無賴輩詐爲出家以求飽飮勺者至或以餅餌米豆柴炭施與京外道路不可勝數列置放生所就傍近寺院演佛經 禁屠殺肉膳亦買市塵以進”

24) 『高麗史』 卷 第九十三, 列傳 第六 崔承老. “光宗 崇信讒邪 多殺無辜 惑於浮屠 果報之說 欲除罪業 浚民膏血 多作佛事

이후 宣宗 7년 崔士謙이 宋나라에서 ‘水陸儀文’을 구해와 普濟寺에 水陸堂을 지었으며²⁵⁾, 忠穆王 4년에 왕의 병 치료를 위해 수륙재를 설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그러나 ‘수륙의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선시대 왕조실록에 의하면 조선 전기의 수륙재는 국가의 억불정책 속에서도 왕실에 의해 지속적으로 설행되며, 나아가 민간에서까지 성행하기에 이른다.²⁷⁾ 후기로 가며 지속적인 억불을 넘어 폐불 정책의 영향으로 수륙재는 사자의례의 통칭적 경향으로 그 성격이 변화한다.²⁸⁾ 따라서 조선시

或設毘盧遮那懺悔法 或齋僧於毳廷 或設無遮水陸會於歸法寺每值佛齋日必供乞食僧 或以內道場餅果出施乞者 或以新池穴口與摩利山等處魚梁爲放生所 一歲四遣使就其衆寺院開演佛經 又禁殺生御廚肉膳不使宰夫屠殺市買以獻至”

25) 『高麗史』 卷 第十 世家 第十 宣宗.

“庚午 七年 春正月 壬辰 普濟寺水陸堂火先是嬖人攝戶部郎中知太史局事崔士謙入宋求得水陸儀文 請王作此堂功未畢而火”

26) 『高麗史』 卷 第三十七, 世家 第三十七 忠穆王.

“戊子 四年 十一月 癸巳朔 公主以王遣前贊成事李君佺設水陸會於天磨山禱之”
『增補文獻備考』 第61卷 高麗條. 참조.

27) 『世宗實錄』 卷55, 世宗 14年 3月 甲子.

28) 수륙재가 사찰의 각종 불사나 기도 또는 법회를 回向하며 法界舍靈의 有主無主孤魂을 위한 齋로 설해진 단면을 다음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楡岾寺普光殿基階改築落成水陸勸善文」 『楡岾寺本末寺誌』

嗚呼, 如逆旅之天地, 若朝菌之浮生, 悠悠元會之間, 茫茫宇宙之下, 上自帝王, 下至衆庶, 未有超然獨存而不逝者也, 生雖爲萬民之主, 而死無一人殉侍者, 故, 無貴無賤, 皆曰孤魂也, 欲度孤魂之苦, 無過水陸無遮大齋也, 或曰, 自天子至於庶人, 追遠報本之禮, 皆以祭祀蒸嘗爲名, 浮屠者奉佛招魂之事, 舉以水陸爲名, 何耶, 曰, 子惟知其方內之禮, 而不知其方外之義也, 夫祭祀者, 其義不普, 其施不博, 通於親而不及於疎, 局於禮義而不及於慈悲, 故, 禮之所當爲則爲之, 不可則止之, 故, 郊則只格天神, 廟則惟享人鬼, 以至社稷 · 山川 · 燔紫 · 告聖之祭, 唯敬其所當主者, 而餘神不得與, 故, 人不事非其鬼, 鬼不享非其禮也, 是以, 孔子曰, 非其鬼而祭之, 謂之諛, 泰山, 亦不饗季氏之旅也, 且水陸者, 迥異於彼, 其施之也博, 齋之也衆, 等於寃親, 同於貴賤, 以至水陸依附魂靈, 無不沾益也, 所謂齋者, 齊也, 濟也, 斧所運, 星樓可成, 時登祀聖, 法樂掀天, 或上尋眞,

대 수륙제 실행은 전기에 집중되고 있다.

수륙제가 실행된 사례를 통해 의례의 목적과 대상을 살펴보자. 조선 초기에 高麗王室의 王氏 追薦²⁹⁾을 위해 실행된 수륙제는 이후 先王·先妣 등 君主의 追薦을 위해,³⁰⁾ 救病을 위해,³¹⁾ 전염병이 돌때에 惡疾 退治을 위해,³²⁾ 축성공사에 동원되었다가 죽은 役夫의 魂靈을 慰安하기 위해,³³⁾ 自然災害의 祈禳을 위해,³⁴⁾ 刑罰로 인하여 죽은 이들을 위해,³⁵⁾ 戰死者의 集團慰靈祭로,³⁶⁾ 漕轉船 운항 중 배가 침몰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또는 安全運航을 기원하며³⁷⁾ 등 여러 死者의 合同薦度나 無主孤魂의 추천을 위해 실행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수륙제의 실행 목적에서 보여주는 추천대상은 감로탱화의 하단에 그려진 내용과 관련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조선시대 수륙제의 실행 형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孝寧大君 補가 한강에서 7일 동안 수륙제를 크게 열었다. 임금이 향을 하사하였다.

세 개의 壇을 쌓았으며 승려 1천여 명에게 음식을 대접하였고, 그들 모두에게 보시도 하였다. 심지어 길가는 행인들에게까지 음식을 대접하였다. 날마다 쌀 몇 섬씩을 강물에 던져 물고기에게까지도 먹을 것을 베풀었다.

仙輿滿肚，衆香城之無竭，因此得參，三日浦之四仙，亦可招邀，當年仙佛，此日樓臺，藉我衆生，伏惟僉署。虛靜 法宗 撰。

29) 『太祖實錄』卷7, 太祖 4年 2月 癸未; 『世宗實錄』卷30, 世宗 7年 12月 甲申.

30) 『太祖實錄』卷2, 定宗 元年 10月 乙卯.

31) 『世宗實錄』卷126, 世宗31年 11月 丁丑; 『世宗實錄』卷127, 世宗 年 6月 乙未; 『文宗實錄』卷9, 文宗 元年 9月 庚子.

32) 『世宗實錄』卷97, 世宗 24年 8月 辛卯.

33) 『太祖實錄』卷9, 太祖 5年 2月 乙卯.

34) 『太宗實錄』卷2, 太宗 1年 10月 丁巳.

35) 『世祖實錄』卷4, 世祖 2年 7月 癸巳.

36) 『世祖實錄』卷42, 世宗 13年 6月 乙未.

37) 『成宗實錄』卷285, 成宗 24年 12月 庚辰.

나부키는 깃발과 日傘이 강을 뒤덮었으며, 종소리와 북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었으니 서울 안의 남자와 부녀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양반집 부녀자들도 더러는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그들을 대접하였는데 승려들과 속인들이 한데 어울려 구분이 없었다.³⁸⁾

위 인용문은 7일 동안 어떠한 절차로 의식이 설행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의식도량을 幡旗로 장엄하고, 승려에게 음식 등을 보시하고, 물고기 방생을 하고, 북과 종을 울리며, 귀천·남여·성속의 구분 없이 수륙제를 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의식에서 감로탱화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인용문의 수륙제가 당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성군관 生員 方運이 올린 글에서 ‘천당과 지옥의 그림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³⁹⁾ 이 그림이 감로탱화였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수륙제에 감로탱화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감로탱화의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감로탱화를 보면 화면의 齋壇 위에 걸린 幡에 ‘水陸大會設齋’, ‘無遮平等會’가 보인다. 또한 佛巖寺 감로탱화의 화면에서도 ‘今此水陸設齋者等伏爲法界含靈願往生’, ‘普告十方刹三界四府等無遮平等會’라는 幡이 걸려 있어 이 화면 안의 의식이 수륙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수륙의례에 감로탱화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륙의문을 통하여 수륙제의 형식과 구체적인 대상을 살펴보자.

38) 『世宗實錄』卷55, 世宗 14年 2月 癸卯.

39) 『世宗實錄』卷64, 世宗 16年 4月 戊午. “壬子년 봄에 無遮의 큰 법회를 열었사온데 승려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한강변에서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넘도록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행사를 하여 幡旗와 일산이 해를 가리우고 종과 북소리가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천당의 즐거움과 지옥의 괴로움을 그려 놓고 살아서 착한 일을 하면 죽어서 복을 받고, 살아서 악한 짓을 하면 죽어서 화를 당한다는 因果應報에 대한 내역을 보여주니, 이에 귀한 사람이건 천한 사람이건 남자·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발돋움한 채 보고 들으니 도시는 이 때문에 텅텅 비고 관문과 나무는 이 때문에 막혀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 ① 天地冥陽水陸雜文 中宗26·嘉靖10年(1531), 順天 松廣寺
- ②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志磐 撰, 宣祖6·萬曆元 癸酉年(1573), 俗離山 空林寺
- ③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宣祖6·萬曆元 癸酉年(1573) 月嶽山 德周寺
- ④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竹庵 編, 顯宗 2년(1661), 雪嶽山 神興寺
- ⑤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天啓 2년(1622), 雞龍山 甲寺
- ⑥ 水陸儀文撮要, 간행연대 미상
- ⑦ 仔夔刪補文, 1664년 淸의 西河 編集, 우리나라 간행연대 미상

수륙제와 관련하여 이상의 水陸儀文이 전하고 있다.⁴⁰⁾ 자료 ①은 2권으로 이루어졌는데 卷上에 水陸緣起와 表章, 榜等文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下에 각종 疏文과 牒文, 輪壇圖 등이 수록되어 있다. 水陸緣起文에서 제의 대상을 上位·下位の 二位로 분류하고 있다. 자료 ②는 志磐의 撰述을 開板한 것으로 총 4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의 대상을 상위·중위·하위 三位로 소칭하고 있다.⁴¹⁾ 자료 ③은 총 3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의 대상을 三位로 소칭하고 있다. 자료 ④는 고려의 竹庵이 편집한 것을 간행한 것으로 총 5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의 대상을 三位로 소칭하고 있다. 그 밖에 休靜禪師가 撰述한 것으로 1664년 해인사에서 간행한 『雲水壇』의 일반 시식의 문에서도 제의 대상을 三位로 소칭하고 있다.⁴²⁾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나라

40) 수록의문 자료는 『韓國佛教資料叢書』와 『佛敎民俗文獻解題』에 의하면 많은 판본이 전하고 있으나 내용과 구성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정리한 것이다.

41) 『佛敎民俗文獻解題』(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71쪽.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에서 총 43편으로 구성된 목차 가운데 「奉請上位篇」과 「召請下位篇」의 소칭을 보이고 있어 二位 구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第一輯,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에서 확인 결과 『佛敎民俗文獻解題』의 자료에서 보이는 ‘讚禮三寶篇’은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자리에 ‘召請中位篇’이 보이고 있어 三位의 三壇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

42) 三位의 3壇으로 設壇하는 예는 權近의 「津寬寺水陸社造成記」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세종14년 효령대군이 한강에서 7일 동안 수륙제를 열었을 때에도 三壇 형식이었으며, 연산군 9년 정월에 설행한 수륙제 에서도 삼단 형식이 확인 된다.

수륙의문이 중국 수륙의문에 근원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설단 형식에 있어서는 중국과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의례문의 내용을 개략 살펴보자. 먼저 設會因由篇으로 시작하는데 그 시설에 三壇을 갖추고, 그 이치는 六度を 갖추고, 법도에 맞추어 수륙제를 열었음을 고한다. 이어 法水에 加護를 입혀서 도랑에 뿌려 청정하게 하고 온갖 더러움을 씻어내고 못 魔障과 사됨을 제거한다.

다음 設齋者가 현생에 복덕과 장수를 더하고, 미래 생에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는 발원으로 水陸無遮平等齋를 열었음을 고한다. 그런 후에 年을 주관하는 四天使者, 月을 주관하는 空行使者, 日을 주관하는 地行使者, 時를 주관하는 閻魔使者 등 使者를 召請한다. 그리고 開闢을 하는데 다섯 방위의 다섯 皇帝와 다섯 神靈을 召請한다.

다음으로 上位성중인 十方의 佛·菩薩·羅漢·三寶를 召請한다.

이어서 中位성중으로 하늘의 신선과 땅의 神, 그리고 冥府의 관료를 소청한다. 즉 天主와 天后, 天神과 龍神, 사마세계의 안팎에서 造化를 主宰하는 天官, 星君, 하늘의 신선, 토지의 신, 婆羅門仙人, 지상세계의 大官, 물 속 세계의 大官, 官曹, 鬼神, 神靈, 官僚를 소청 한다.

그 다음은 下位로, 三途에 빠져있는 魂魄과 十類孤魂 등을 소청한다. 즉 法界의 과거와 현재의 世主와 文武官僚의 영혼과 列國의 諸侯와 忠義將帥, 국경을 지키던 관료와 병졸, 朝野에서 벼슬을 받아 內外로 赴任한 사람, 전쟁터로 나가던 장수와 符節을 지닌 使臣, 산과 숲에서 仙法을 배우는 道人, 사방을 다니던 比丘尼와 여자 도사, 道教와 儒教의 공부를 하여 과거를 준비하는 무리, 신령을 섬긴 巫女와 음악을 맡던 관리, 경영하며 이익을 추구하다가 他鄉에서 客死한 사람, 非命에 橫死한 연고 없는 귀신, 신분이 높든 낮든 모든 남녀의 무리, 胎卵濕化 四生의 중생, 털이 있는 중생과 깃털이 있는 중생과 비늘이 있는 중생과 껍데기가 있는 중생과 나머지 모든 중생, 큰 입에 복구멍은 바늘만치 작으며 배가 크고 냄새나는 털을 가진 아귀도의 무리, 주변

의 고독한 지옥에 태어난 무리, 욕도를 윤회하며 어두운 세계에 있는 中陰界의 중생 등 추천 대상을 소칭한다. 그리고 五趣의 阿修羅, 다른 국토의 十類孤魂, 초목에 기대어 있는 鬼神, 저승과 地獄의 크고 작은 鐵圍山, 모든 地獄의 헤아릴 수 없는(恒河沙) 餓鬼, 法界의 衆生과 中陰을 소칭한다.

이상에서 의례문에서 소칭되는 대상을 수록의례에 사용되는 감로탱화에 각각의 장면으로 표현하였을 근거와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Ⅲ. 감로탱화와 수록화의 내용 비교

수록의례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수록화가 사용되었으며 한국에서는 감로탱화가 사용되었다. 수록의례에 사용된 두 탱화의 구성 내용에는 의례의 목적과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감로탱화와 수록화에 표현된 내용의 비교를 통하여 두 탱화의 변별을 살펴보자.

1. 감로탱화의 내용

감로탱화의 화면은 대부분 三段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탱화의 하단에 표현된 고힌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⁴³⁾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감로탱화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上段에는 多寶如來, 寶勝如來, 妙色身如來, 廣博身如來, 離怖畏如來, 甘露王如來, 彌陀如來 등 七如來와 觀音菩薩, 地藏菩薩, 引路王菩薩이 등장한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성된 감로탱화에서는 칠여래와 별도로 阿彌陀三尊이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수록의례와 관련된 阿難尊者가 등장하기도 한

43) 연제영, 전계서, 2004.

다.

다음으로 中段에는 齋壇을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이에 따른 儀式場面으로 作法僧衆과, 의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法具를 차려놓은 排設과, 喪主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下段에서는 다양한 추천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탕화마다 그 장면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사회상·문화상·자연재해상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⁴⁴⁾ 그 자세한 내용을 육도윤희로 나누어 살펴보자.

첫째, 地獄道를 ‘地獄道衆’, ‘地獄城門’, ‘鐵圍山’, ‘八万四千地獄城門’의 題名으로 다양한 지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鑊湯地獄’, ‘通槍地獄’, ‘鋸解地獄’, ‘出腸地獄’, ‘火趣地獄’, ‘拔舌地獄’, ‘鐵床地獄’, ‘寒水地獄’, ‘刻皮地獄’, ‘刀刺地獄’, ‘吸血地獄’, ‘爆裂地獄’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와는 달리 ‘破地獄’, ‘地藏登場錫破地獄門’이라는 題名으로 지옥중생 구체의 의미를 담아 지옥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둘째, 餓鬼道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아귀를 대부분 화면 중앙의 재단 아래, 또는 재단이 생략된 중앙에 1位 또는 2位를 커다랗게 배치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針咽巨腹’, ‘恒沙餓鬼’, ‘恒河水’, ‘恒河沙’, ‘餓鬼衆’, ‘起教大士面燃鬼王’, ‘南無大聖悲增菩薩’, ‘焦面鬼王’, ‘悲增菩薩’로 아귀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셋째, 畜生道는 호랑이가 사슴과 같은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장면에 ‘力勝相啖’의 題名으로 표현하고 있다.

넷째, 阿修羅道는 아수라의 잘 참지 못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특성에 주목하여 ‘兩陣相擊’, ‘兩陣相交’, ‘明用創刀’, ‘刀劔相殺’, ‘刀杖加害’, ‘交棒殘害’, ‘酒犯投壺’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섯째, 人間道로는 당시 신분이나 직업을 나타내고 있는 ‘帝王’, ‘后妃’, ‘文武官僚’, ‘尊官婦女’, ‘大臣輔相’, ‘忠義將帥’, ‘展賦典吏’, ‘抱學書生’, ‘儒

44) 연제영, 전계서, 2005.

道’, ‘土農’, ‘工商’, ‘比丘’, ‘比丘尼’, ‘沙彌’, ‘式叉摩那’, ‘優婆塞’, ‘優婆夷’, ‘侏儸仙人’, ‘苦行仙人’, ‘僧尼道士女冠’, ‘師巫神女’, ‘散樂伶官’, ‘雙盲卜士’, ‘賣卦山人’, ‘道儒二流佩錄赴舉’, ‘毘舍普陀一切人倫’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밖에 인간도의 다양한 장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살하여 죽은 원혼을 ‘自縊殺傷’, ‘自刺而亡’, ‘含冤無訴而自刺’, ‘落井而亡’, ‘投河落井’, ‘落井自死’로, 근심걱정으로 죽은 원혼을 ‘憂愁失命’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분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主殺基奴’, ‘奴犯其主’로 표현하고 있다. 형벌로 인하여 죽은 원혼은 ‘刑憲而終’, ‘斬頭落地’, ‘牢獄堅囚’로, 간통 하다 발각되어 죽음을 당한 원혼을 ‘爲色相酬’로 표현하고 있다.

장사를 하며 재물을 지키다 죽은 고훈을 ‘負財失命’, ‘寇賊橫災’, ‘經營求利’, ‘興生經起’로 표현하고 있다. 바다에서 운항 중 배가 침몰하여 익사한 고훈을 ‘海濱溺亡’, ‘破船陷沒’로 표현하고 있다. 場市 등을 찾아 놀이를 하며 유랑하다 죽은 고훈을 ‘解愁樂士’, ‘解愁樂死’로, 연회를 하다 실수 또는 사고로 죽은 고훈을 ‘舞童落死’로 표현하고 있다. 도박으로 허송세월하다 죽은 고훈을 ‘雙六圍碁’, ‘六抱戲侮’로 표현하고 있다.

생업을 잃고 떠돌다 죽거나 굶주려 죽은 고훈을 ‘異境他鄉’, ‘他鄉餓死’, ‘奔越流移’, ‘無家定處而亡’ ‘飢△凍餓他鄉之流’, ‘抱兒無乳’, ‘婦負亂兒行乞’로, 의지할 곳 없이 고독하게 죽은 고훈은 ‘老年無護’, ‘幼年無依’, ‘無依定處’, ‘孤獨始終’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죽은 고훈을 ‘霹靂而亡’, ‘江河沒死’, ‘山水失命’, ‘山水沒溺’, ‘偶天災殃’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염병으로 죽은 고훈을 ‘山風痛氣’, ‘山嵐瘴氣’로, 목적지에 이르기 전 도중에서 병을 얻어 죽은 고훈을 ‘半路遭疾’로, 오랜 병석으로 죽은 고훈을 ‘久病纏身’으로, 의료사고로 죽은 고훈을 ‘誤針殺人’, ‘灸療’로 표현하고 있다. 출산을 하다 잘못되어 죽은 고훈을 ‘子母俱喪’, ‘受胎獨亡’, ‘落胎落孕自死’로 표현하고 있다.

맹수나 독충에 물려 죽은 고향을 ‘獸噬’, 虫傷, 首陔, ‘虯傷身亡’, ‘非命橫死’로 표현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죽은 고향을 ‘馬踏’, ‘車碾’ ‘巖搗摧催’, ‘屋倒而亡’, ‘牆崩而死’, ‘瀑布落死’, ‘石壘’, 石搗巖摧, ‘樹折之死’, ‘顛沛失命’, ‘野火燒亡’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밖에 부부의 불화로 죽은 ‘夫婦不諧’, 몰래 독약을 먹여 죽은 ‘暗施毒藥’ 등의 고향도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天上道는 화면 중앙의 재단을 중심으로 윗부분에 좌우로 ‘天人眷屬’, ‘六欲天衆’, ‘四禪’, ‘四空’, ‘四梵’, ‘三梵天人’의 제명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감로탱화의 하단에 육도윤회상으로 표현된 추천대상은 내용별로 총 50여 장면에 달한다. 하나의 감로탱화에 등장하는 추천대상은 5~37 장면으로, 탱화가 조성되던 당시 시대상이 반영되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수록화의 내용

중국에서 水陸道場의 儀式에 내어 걸었던 水陸畫의 자료는 감로탱화에 비하여 적은 수가 전한다.⁴⁵⁾ 보녕사 수록화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모습을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감로탱화와는 시대적 근접성과 수록화의 전체적 내용 파악을 고려하여 『宝寧寺 明代 水陸畫』⁴⁶⁾를 텍스트로 삼아 고찰 하고자 한다.

45) 현재까지 소개된 수록화는 보녕사 수록화를 비롯하여 青海省 樂都縣 西來寺 수록화가 전하나 24폭만이 남아있다. 壁畫로는 稷山縣 靑龍寺 後院 腰殿과, 石家莊市 毘盧寺 毘盧殿, 그리고 山西省 渾源縣 永安寺 正殿과 繁峙縣 公主寺 傳法正宗殿에 그려진 벽화 등이 전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판화로는 「水陸道場神鬼圖像」(『中國古代版畫叢刊』第2輯, 상해고적출판사, 1994.)이 전하고 있으나 앞부분이 결손 되어 있다. 보녕사 수록화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모습을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46) 山西省博物館, 『宝寧寺明代水陸畫』(成都: 文物出版社, 1988).

수륙화에 그려진 내용을 수륙의례에서 배치되는 위치와 순차에 의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上位에 배치되는 佛圖로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보생불, 아촉불, 성취불, 아미타불 2위, 기타 佛圖 1위가 배치된다. 그리고 菩薩圖로 문수보살, 관음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과 기타 보살도 6위가 배치된다.

다음으로 좌우로 나누어 明王圖가 배치된다. 좌측으로는 순차에 의해 焰髮德迦明王, 無能勝明王, 馬首明王, 甘露軍咤明王, 降三世明王이 배치되고, 우측으로는 大笑明王, 步擲明王, 大力明王, 不動尊明王, 變現忿怒大輪明王이 배치된다.

다음으로는 존자도가 배치되게 되는데 존자도는 한 쪽에 두 장면을 담고 있다. 좌측으로 跋羅墮尊者와 伽伐蹉尊者, 諾炬羅尊者와 跋陀羅尊者, 戌博迦尊者와 伴諾迦尊者, 因迦陀尊者와 伐那波斯尊者가 배치된다. 우측으로는 諾迦跋哩陀尊者와 蘇頻陀尊者, 迦力迦尊者와 佛陀羅尊者, 羅怛羅尊者와 耶迦犀尊者, 阿氏多尊者와 茶呌咤迦尊者가 배치된다.

다음으로 天神, 地神, 水神 등 여러 신들이 배치된다. 좌측으로 天龍八部諸神衆, 衛法神王婆羅門仙等衆, 天藏菩薩, 無色界四空天諸天衆, 色界四禪非非想大梵天主衆, 大梵天無色界上四天并諸天衆, 大梵天主諸神衆, 忉利帝釋天主衆, 欲界十二天主諸天衆, 北方護世大藥叉主多聞天王과 南方護世鳩槃荼主增長天王과 西方護世大龍王主廣目天王 그리고 東方護世乾闥婆主持國天王, 菩薩衆, 北極紫微大帝衆, 星主宿主清涼照夜月宮天子와 百明利生千光破暗日宮天子諸神衆, 太乙諸神衆, 五方五帝衆, 太陽木星火星金星水星土星眞君, 太陰羅睺計都紫無月孛星君衆, 寶瓶金牛天蠍巨蟹磨羯宮神, 天馬天秤雙女雙魚白羊獅子神, 子丑寅卯辰巳元神君衆, 午未申酉戌亥十二元辰星君, 角亢氐房心尾箕星君, 斗牛女虛危室壁星君, 奎婁胃昂畢觜參星君, 井鬼柳星張翼軫星君, 北斗七元左輔右弼衆, 普天烈曜一切星君諸神重, 匡野四將神祇等衆, 天地水府三官大帝衆, 天蓬天猷翊聖玄武眞君, 天曹府君天曹掌祿主算判官諸司判官等衆, 大

阿修羅王諸神衆, 年月日時四直功曹使者, 鬼子母羅刹諸神衆, 阿利帝母大羅刹諸神衆, 大聖引路王菩薩衆이 배치된다. 우측으로는 八大金剛諸神衆, 隨其所求令得成就大功德天特尊之主居色頂天摩醯首羅衆, 金剛密迹等衆, 二十八部統領鬼神散脂大將衆과 殷憂四部外三洲韋馱尊天衆, 持地菩薩衆, 九天后土聖母諸神衆, 東岳天齊仁聖帝, 南岳司天化昭聖帝와 岳中天大寧崇聖帝, 西岳金天順聖帝와 北岳安天元聖帝, 秘藏法寶主執群龍娑竭羅龍王衆, 增長出生證明功德堅牢地神助楊正法訶利帝喃諸神衆, 行日月前救兵戈難摩利支天諸神衆, 四海龍王諸神衆, 江河淮濟四瀆諸神衆, 五湖百川諸龍神等衆, 陂池井泉諸龍神衆, 主風主雨主雷主電風伯雨師衆, 主苗主稼主病主藥五谷神衆, 守齋護戒諸龍神衆, 下水水府三官大帝衆, 順濟龍王安濟夫人諸龍神衆, 太歲天子大煞博士日游太陰諸神衆, 大將軍黃幡豹尾白虎金神青羊鳥鷄衆, 蚕官五鬼諸鬼神衆, 鶴神雌神雄神火血神黃血刀刀砧七煞諸神衆, 年禁月琴太白歲煞官符土后土伯幢命諸神衆, 吊客喪門大耗小耗宅龍諸神衆, 護國護民城隍社廟土地殿塔伽藍等衆이 배치된다.

그 다음 지장보살과 十王을 비롯하여 육도윤회상의 수록화가 배치된다. 우측으로 地藏菩薩秦廣楚江宋帝五官, 閻羅變成泰山平等都市轉輪大王衆, 地府六曹四司判官地府都司官, 地府五道將軍等衆, 善惡二部牛頭阿傍諸官衆, 八寒八熱諸地獄孤魂衆, 近邊孤獨地獄屋倒牆崩等衆, 起教大師面然鬼王衆, 主病鬼王五瘟使者衆, 大腹臭毛針咽巨口饑火熾然鬼魂衆, 孤魂, 六道四生一切有情精魂衆이 배치된다.

끝으로 고희이 그려진 수록화가 배치되게 된다. 좌측으로 帝王一切太子王子等衆, 妃后宮嬪姝女等衆, 文武官僚宰輔衆, 爲國亡軀一切將士衆, 比丘衆, 比丘尼女冠優婆塞優婆夷諸士等衆, 道士昇霞燒丹未明衆, 儒流賢士丹青撰文衆, 孝子順孫等衆, 三貞九烈賢婦烈女孤魂衆, 九流百家諸士藝術衆, 顧典婢奴棄雜妻子孤魂衆이 배치된다. 우측으로는 饑荒殍餓疾病纏綿自刑自縊衆, 依草附木樹折崖摧針灸病患衆, 枉濫無辜銜冤報屈一切孤魂衆, 赴刑都市幽死狴牢鬼魂

衆, 兵戈盜賊諸孤魂衆, 火焚屋宇軍陣傷殘等衆, 讎冤報恨獸咬虫傷孤魂衆, 墮胎產亡嚴寒大暑孤魂衆, 悞死鍼醫橫遭毒藥嚴寒衆, 身殞道路客死他鄉水漂蕩滅衆, 一切巫師神女散樂伶官族橫亡魂諸鬼衆이 배치된다.

하당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고용되어 팔려가는 노비와 처자를 빼앗기고 떨어져 살다 죽은 고훈, 기황으로 굶주림과 전염병에 시달려 죽거나 스스로 목을 매서 죽은 고훈, 억울한 무고로 한을 품고 죽은 고훈, 형벌로 죽거나 감옥에서 죽은 고훈, 병기를 든 도적을 만나 재물을 지키다 죽은 고훈, 전쟁으로 집에 불이나 죽거나 군진에서 죽은 고훈, 호랑이에 물려 죽거나 독충에 물려 죽은 고훈, 낙태와 출산을 하다 죽거나 큰 추위나 큰 더위로 죽은 고훈, 침을 잘못 맞아 죽거나 몰래 독약을 먹여 죽은 고훈, 거리에서 객사하거나 홍수로 인해 물에 휩쓸려 죽은 고훈의 모습에서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록화에 표현된 내용은 의례의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에 불교와 관련한 佛·菩薩과 바라문신인, 도교신앙의 대상인 天神·地神·河海神, 그리고 중국의 민간신앙의 대상인 三官·五帝·五嶽·四瀆 등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추천대상에 있어서는 감로탕화처럼 사회상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IV. 甘露와 水陸의 상징성 검토

1. ‘甘露’의 상징

불교에서 甘露는 Amrita의 음역으로, 그 맛이 꿀처럼 달고 마시면 죽지 않는다는 뜻에서 如來의 教法을 비유하여 말한다. 여래가 중생들에게 감로법을 베푸는 것은 번뇌를 끊고 생사윤회에서 해탈하게 하기 위함이다.⁴⁷⁾ 감로탕

화에서 감로는 餓鬼 또는 죽은 靈魂에게 飲食과 法食을 베풀어 허기를 없애 육도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涅槃, 極樂으로 인도하는 妙法을 말한다.

감로탱화에 구조적으로 장치되어있는 감로의 상징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먼저 上段에 甘露王如來를 비롯하여 多寶如來, 妙色身如來, 廣博身如來, 離怖畏如來, 寶勝如來, 阿彌陀如來의 七如來가 등장하고 있다. 칠여래의 상징은 고흔들이 貪心을 버리고, 法財를 具足하고, 나쁜 길을 버리고 뜻에 따라 오르게 하며, 누추하고 험상한 형상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圓滿한 형상을 갖게 하고, 육도의 輪廻에서 벗어나 허공의 청정한 法身을 얻게 하여,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涅槃의 즐거움을 얻고, 목이 잘 열려 甘露의 맛을 보게 하여, 극락세계에 왕생케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⁴⁷⁾

다음으로 中段에서는 齋壇을 중심으로 儀式場面인 作法僧衆과 大乘經典⁴⁹⁾이 표현되고 있다. 그 상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47) 『大般涅槃經』 第十卷 (『高麗大藏經』 第三十八卷, 821a)

現病品第十八, “施諸衆生甘露法 爲斷除彼諸煩惱 若有服此甘露已 不復受生老病死”

『大般涅槃經』 第十六卷 (『高麗大藏經』 第三十八卷, 875a)

梵行品之三, “世尊甘露藥 以施諸衆生 衆生既服已 不死亦不生”

48)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第一輯(서울: 三聖庵, 1993), 「勸供諸般文」, 第二輯, 「諸般文」과 「雲水壇」 施食儀文, 참조.

“南無多寶如來 願諸孤魂 破除慳貪 法財具足. 南無寶勝如來 願諸孤魂 各捨惡道 隨意超昇. 南無妙色身如來 願諸孤魂 離醜陋形 相好圓滿. 南無廣博身如來 願諸孤魂 捨六凡身 悟虛空身. 南無離怖畏如來 願諸孤魂 離諸怖畏 得涅槃樂. 南無甘露王如來 願諸孤魂 咽喉開通 獲甘露味. 南無阿彌陀如來 願諸孤魂 隨念超生 極樂世界.”

49) 감로탱화의 中段에 표현된 의식장면의 작법승중 앞 經床에 의례집이 놓여있다. 대부분의 감로탱화에서 의례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仙巖寺 西浮屠殿 감로탱화(1736)와 鳳瑞庵 감로탱화(1759)의 의식장면에서는 경상 위에 범화경한 질이 든 ‘法華經函’이 놓여 있으며, 다른 경상에는 『雲水集』, 『中禮文』, 『結手文』, 『魚山集』 등이 놓여 있다.

의식장면을 표현한 가운데 왼손에 발우를 들고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 손가락을 맞대어 텅기는 모습의 手印을 하고 있거나, 수인 대신 持物을 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⁵⁰⁾ 이 장면은 『佛說甘露經陀羅尼呪』⁵¹⁾의 “오른손으로 물을 한 움큼 떠서 주문을 일곱 번 염송하고 공중에 뿌리면 그 중의 물 한 방울이 변화하여 열 가마(斛)의 甘露가 될 것이니 모든 餓鬼들이 그 감로를 마시면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이 모두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라는 대목에 근거하여 감로의 상장을 의식장면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장면은 감로탱화에 표현된 의례집인 『雲水壇』⁵²⁾의 「三壇作觀變供」과 수록의문 가운데 月巖山 德周寺에서 刊行한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⁵³⁾에 의하면, 이 승려는 證明을 맡고 있으며 의식장면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50) 왼손에 鉢盂를 들고 오른손으로 手印을 한 장면이 등장하는 감로탱화는 일본 약선 사장 감로탱화(1589), 일본 조전사장 감로탱화(1591), 일본 광명사장 감로탱화(16세기) 등이 있다.

그리고 왼손에 발우를 들고 오른손에 持物을 들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감로탱화로는 보석사 감로탱화(1649), 우학문화재단 소장 감로탱화(1681), 남장사 감로탱화(1701), 여천 흥국사 감로탱화(1741), 원광대학교박물관 소장 감로탱화(1764), 신흥사 감로탱화(1768), 용주사 감로탱화(1790), 호암미술관 소장 감로탱화(18세기), 백천사 운대암 감로탱화(1801)가 있다.

또한 일본 서교사장 감로탱화(1590)에서는 특이하게 持物위에 발우가 등장하며, 운흥사 감로탱화(1730)와 선암사 서부도전 감로탱화(1736)에서는 발우 없이 手印만을 하고 있다.

51) 『佛說甘露經陀羅尼呪』(『高麗大藏經』第十三卷, 1252b)

“右取水一掬呪之七遍散於空中其水一滲變成十斛甘露一切餓鬼並得飲之無有乏少皆悉飽滿”

52)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第二輯, 「雲水壇」 61쪽.

‘三壇作觀變供’, “誦淨法界呪時證明舒右手無名指寫梵書 ... 誦變食呪時證明舒右手無名指寫 ... 誦甘露呪時證明立壇前焚香卽以左手執水盂右手執楊枝以楊枝熏香烟懸於水盂三度. 誦水輪觀時以楊枝寫음뎡二字於水盂因攪其水三度使香烟合於水想뎡字神力能流出香海妙水遍洒空中. 誦乳海呪時以楊枝洒香水於供具上三度洒於空中又三度畢合掌當靑小退立呪說.”

53)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第一輯,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638쪽.

있다. 수인과 지물이 의미하는 것은 아귀고 즉 고통의 세계에서 극락정도로 나아가는 장치로 감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듯 의식장면의 의미는 下段에 아귀를 비롯하여 고힌으로 표현된 육도중생을 上段의 불보살의 세계로 追薦하기 위하여 감로를 베푸는 상징으로 표현된 것이다. 甘露를 육도윤회 중생에게 베풀기 위해서 儀式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施食이라 한다.⁵⁴⁾ 이것이 곧 儀式의 甘露인 것이다. 또한 의식에서 供養되는 盛饌이 甘露이며, 儀式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布施가 甘露이고, 無明에 쌓인 중생에게 대승경전을 讀誦하여 육도윤회에서 解脫케 하는 大乘經典이 甘露이다. 그러므로 眞理와 物質과 行爲의 상징적인 甘露를 中段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下段에서는 餓鬼를 비롯하여 추천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아귀는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에서 그 형상이 누추하고 신체는 마르고 파리하며, 입속에서는 불이 타는데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이 작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⁵⁵⁾ 배고픔에 괴롭고, 뜨거운 불로 인해 고통 받는 모습은 지옥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아귀는 지옥중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귀의 타는 목과 배고픈 고통을 구제하는데 있어서 감로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餓鬼苦에 빠진 육도윤회중생에게 감로를 베풀어 극락왕생하게 하는 것이 감로탱화의 중심 내용이라 하겠다.

이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면, 화면 下段에 아귀를 비롯한 추천대상을 구제하는 장치로 中段에 甘露儀式을 배치하고, 의식을 통해 甘露를 받아 인로왕보살의 인도로 上段의 甘露王如來를 비롯한 불보살의 구제를 받아 극락왕생하는 장치로 감로가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단→중단→상단의

54) 추천의식의 所依經典으로는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 『佛說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 『佛說甘露經陀羅尼呪』, 『孟蘭盆經』, 『目連經』, 『阿彌陀經』, 『地藏菩薩本願經』 등을 들 수 있다.

55)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 (『高麗大藏經』 卷 第三十六. 963b)
“餓鬼名曰焰口 其形醜陋 身體枯瘦 口中火然 喉如針鋒”

구조를 연계하는 장치로 감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감로탱화라 칭한 것으로 해석한다.

감로탱화의 명칭을 연구자에 따라 ‘下壇幀’, ‘施餓鬼圖’로 칭하기도 하였다. 下壇幀은 불교의 삼단배치법, 즉 上壇의 須彌壇, 中壇의 神衆壇, 下壇의 靈壇을 지칭하는 용어에 따라 靈駕에게 施食을 하는 下壇에 배치된다 하여 하단탱이라 칭한 것이다. 시아귀도는 일본인에 의하여 사용되었는데⁵⁶⁾ 이는 탱화에 표현된 감로의 상징적 장치와 의미를 간과하고 탱화의 下段에 표현된 아귀에 집착한 결과로 전체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하겠다.

2. ‘水陸’의 상징

수륙재 또는 수륙회에서 사용되는 水陸의 의미는 ‘諸仙은 흐르는 물에서 먹을 것을 얻고, 귀신은 깨끗한 땅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⁵⁷⁾는 데서 비롯되었다. 즉 수륙에서 ‘水’는 모든 仙을 말하고, ‘陸’은 모든 귀신을 의미한다. 시식법의 소의경전인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과 『佛說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에서 阿難이 무수한 餓鬼와 브라만 仙人들을 위해 施食 供養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수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식의 대상인 브라만선은 ‘수’로, 아귀는 ‘륙’으로 볼 수 있다.

수륙재는 제선을 비롯하여 육도사생에게 공양을 베푸는 의식이다. 이는 중국의 양무제가 수륙재를 처음 설행했던 인용문에서 육도사생의 범계함령을 널리 구제하여 공덕을 쌓는 모습에서 확인 된다. 이러한 수륙재의 성격이 시간을 더해가며 억울하게 희생된 원혼을 달래는 齋會로 그 성격이 변화하

56) 關野貞, 『朝鮮の建築そ藝術』(東京: 岩波書店, 1941), 195쪽.

57) 『金園集』卷中, ‘施食正名’ “水陸者所以 取諸仙致食於流水 鬼致食於淨地之謂也.” 『續藏經』, 第五十七卷, 九五十冊, 10쪽.

었다.

중국에서 수륙의 상징은 수륙제의 대상인 불보살과 브라만신인, 그리고 아귀에서 확대되었다. ‘수’의 범위에 중국의 민간신앙의 대상인 天神, 地神, 河海神, 龍王 등을 포함하고, ‘륙’의 범위도 당시 사회상이 반영된 다양한 추천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수륙제의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비중을 차지했던 민간신앙의 대상과 도교신앙의 대상이 축소되었다. 그리고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로 혼란한 민심을 수습하거나, 부역이나 형벌, 또는 전란으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수륙제가 설행되었다. 이러한 재회에서 물과 물에서 죽은 원혼과 고훈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즉 수륙제 설행 목적에 따라 추천대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수륙제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수륙의 상징성이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정은 다양하게 제시되는 수륙제의 정의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물과 땅에서 헤매고 있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를 위로하기 위하여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공양하는 의식.
- ② 수륙의 무주고혼을 위해 평등하게 불법을 설하고 공양을 베푸는 의식.
- ③ 물이나 육지에 있는 고훈과 아귀에게 공양하는 의식.
- ④ 수륙망혼의 천도를 위해 거행되는 재 의식.
- ⑤ 무주고혼의 천도를 위해 개설되는 재.
- ⑥ 인연 없는 망령을 위안하기 위해 법식을 베풀어주는 법회
- ⑦ 망혼의 천도를 위해 열리는 의식으로, 불·보살의 법력을 빌려 육도중생을 초도하여 천계에 오르게 하는 법회.
- ⑧ 바다나 육지에서 배회하는 영혼들에게 다음 생으로의 안착을 기원하는 불교의식.

이상과 같은 수륙제의 정의는 수륙의 상징적 의미보다는 물과 물의 범주에 집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설사 상징적 의미를 다소 공감한다 해도

‘水’의 상징적 의미는 축소되거나 소외되고, ‘陸’의 상징에 있어서도 육도윤회 중생이 胎卵濕化로 태어나 羽毛鱗介의 모습을 가지는데 이러한 육도윤회 중생을 소홀히 하고 있어 수륙의 본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수륙의 상징성 고찰을 위해 먼저 수륙제의 성격을 확인해 보자. 앞서 인용된 崔承老 관련기사 가운데 수륙제를 ‘無遮水陸會’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水·陸의 無主孤魂을 위해 평등하게 佛法을 說하고 음식을 베푸는 의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權近의 「津寬寺水陸社造成記」에서는 ‘水陸無遮平等會’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도 貴賤·男女·僧俗의 차별 없이 수륙의 無主孤魂에게 法食을 제공하여 追薦하고 공덕을 쌓는 수륙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수륙제의 無遮, 平等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앞서 제시되었던 수륙의문의 제명 ‘天地冥陽水陸雜文’,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과, 감로탱화의 화면에 표현된 幡에 쓰여진 ‘水陸大會設齋’, ‘無遮平等會’, ‘今此水陸設齋者等伏爲法界含靈願往生’, ‘普告十方刹三界四府等無遮平等會’를 통해서 수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위의 수륙의문과 번에서 ‘水陸’과 함께 ‘天地’, ‘冥陽’, ‘聖凡’, ‘無遮’, ‘平等’이 표현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水陸’에 대하여 살펴보자. 『蓮潭大師林下錄』의 「水陸法語」에 의하면 “수륙이라는 것은, 십법계 중 모든 불·성문·연각·보살, 이 네 성인은 성인이기 때문에 청정하다. 그래서 물에 비유한다. 천도·인도·수라·방생·아귀·지옥의 육범은 평범하기 때문에 더럽다. 그래서 육지에 비유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⁵⁸⁾ 그러므로 ‘수’는 四聖을, ‘륙’은 六凡을 상징한다

58) 『蓮潭大師林下錄』卷之四, 「水陸法語」, “... 水陸者 十法界中 諸佛菩薩緣覺聲聞 此四聖 聖故淨也 喻之以水 天道人 道修羅傍生餓鬼地獄 此六凡 凡故染也 喻之以陸也 此四聖六凡 同在一眞法界中 一一天眞 一一明妙 不增不減 無高無下 故云撒眞珠也 ...” 『韓國佛教全書』第十冊, 朝鮮時代篇四(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89), 273-274쪽.

하겠다.

그리고 ‘天地’에서 하늘은 聖스럽고 땅은 俗스러움을 뜻한다. 聖이 하늘로부터 강림하고, 凡이 땅에 모이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공간적으로 十方法界를 뜻하는 것이다. ‘聖凡’은 깨달음을 이룬 聖人과 아직 미혹에 있는 凡夫를 뜻한다. 즉, 불·성문·연각·보살의 四聖과, 천도·인도·수라·방생·아귀·지옥의 六凡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성은 眞諦, 육범은 俗諦를 뜻한다 하겠다. ‘冥陽’은 사후의 冥界와 현생의 陽界를 말한다. 冥界는 冥道, 冥土라고도 하며 지옥·아귀·축생의 三道를 포함하여 말한다. 때로는 지옥도만을 말하기도 하며, 閻魔王이 주재하는 죽은 뒤의 세계만을 말하기도 한다. 수륙의문에서 冥은 冥界의 餓鬼를 뜻하며, 陽은 陽界의 婆羅門仙을 뜻한다. 나아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뜻한다.

이상에서 ‘水陸’, ‘天地’, ‘聖凡’, ‘冥陽’은 재회의 대상을 말하고 있으며, ‘無遮’, ‘平等’은 재회의 성격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수륙은 부처와 중생, 婆羅門仙과 餓鬼, 성인과 범부, 깨달은 성자와 미혹한 중생, 聖스러움과 俗스러움, 진제와 속제, 명계와 양계,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등을 상징한다. 이들의 경계가 둘이 아닌 하나로,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한 자리에 모여서 범식을 베푸는 재회를 수륙제라 정의 할 수 있다.

V. 나오는 말

수륙의례에 사용되는 불화의 명칭을 한국에서는 감로탱화라 칭하며, 중국에서는 수륙화라 칭하며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탱화의 구성형식과 그려진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감로탱화와 수륙화에 그려진 내용의 비교를 통해 그 변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수륙제의 설행 목적과 대상을 통해 감로탱화와 수륙화에 그려진 장면의

내용과 관련성을 고찰하여, 두 탕화가 수록의례에 사용되기 위해 조성된 공통점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수록의문이 중국에 기원하고 있으면서도 의례의 형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의례의 대상을 소칭함에 있어 ‘行上堂召請法事’와 ‘行下堂召請法事’로 上堂·下堂의 형식으로 설행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召請上位篇’, ‘召請中位篇’, ‘召請下位篇’의 三位 형식으로 설행되었다. 우리나라 수록제는 중국의 上堂의 불·보살을 비롯한 제선과, 下堂의 육도윤회중생 사이에 양분되었던 諸天, 仙人, 神將 등을 中位로 따로 분류하여 삼위의 형식을 띠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불교의례의 三壇형식과 맥락을 같이한다.

탕화의 형식에 있어서 水陸畵는 수록에 해당하는 다양한 장면을 각각의 화면으로 구성하고 있다. 반면에 감로탕화는 하나의 화면에 전체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탕화에 그려진 내용으로 수록화는 위로는 ‘水’의 상징으로 佛·菩薩과 바라문신, 도교신앙인 天神·地神·河海神, 중국의 민간신앙인 三官·五帝·五嶽·四瀆 등을 표현하고 있으며, 아래로는 ‘陸’의 상징으로 육도윤회 중생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감로탕화는 下段에 표현된 추천대상을 구제하는 장치로 甘露를 베풀기 위해 中段에 甘露儀式을 배치하고, 인로왕보살의 인도로 上段의 甘露王如來를 비롯한 불·보살에 의해 구제를 받아 극락왕생하는 내용으로, 甘露의 구조적 상징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수록화에 등장하지 않는 齋壇을 장치하여 제단의 공양물과 작법승중, 그리고 의식집을 등장시켜 감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감로탕화와 수록화의 변별성을 가리는데 있어서 그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

정리하면 중국의 수록화는 도교와 불교 그리고 민간신앙이 반영되어, 수록을 도상화한 것이라 하겠다. 반면에 감로탕화는 불교사상에 비중을 두면서

육도윤회 중생을 구제하는 장치로 감로의 상징성을 도상화한 것이라 하겠다.

본고는 앞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수륙의례 연구의 선행 작업의 범주에서 수행하였다. 이 작업은 중국의 수륙화와 관련하여 감로탱화의 상징적 구조를 밝힌데 의의를 두며, 아울러 조선시대 수륙의례의 원형발굴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Chucheonjae(追薦儀禮), Suryukjae(水陸齋), Suryuk paintings(水陸畫), Amrita paintings(甘露眞畫), Chucheon objects(追薦對象), metempsychosis(輪廻).

A comparison of Suryuk paintings and Amrita paintings in a ritual viewpoint

Yeun, Je-Young(mee deung)

The Chucheonjae(追薦儀禮) are based on the metempsychosis and the thought of merit, based on the theory of causality and fatality. Among Chucheonjae, there is a ritual called Suryukjae(水陸齋, ritual for water -and-land), which takes place when there are no descendants, sisters or brothers and relatives who can hold the ritual of the deceased.

The Buddhist paintings that are used in Suryuk rituals are called Suryuk paintings(水陸畫, paintings for water -and-land) in China and Amrita paintings(甘露幀畫) in Korea. The two kinds of paintings - Chinese and Korean Buddhist paintings - have some differences in their structural patterns and cont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distinctiveness of the two kinds of paintings by comparing the contents of those paintings.

Korean Suryukjae originated from China, but it has some differences in ritual forms. In China, when calling the subject of the ritual, it is practiced by the pattern of the upper section and the bottom section. But in Korea, it is practiced by the pattern of upper part, middle part, and lower part.

Suryuk paintings presented in Buddhist paintings, show various

gods including the Buddha and Bodhisattva which is the symbol of water, and mankind that transmigrate the Six Realms which represent land. On the other hand, Amrita paintings express the Buddha and Bodhisattva including Gamrowangbha in the upper section, the scenes of ritual in the center section, and mankind that transmigrate the Six Realms as the subject of the Chucheon in the bottom section.

In Amrita paintings, the altar is painted, which doesn't appear in Suryuk paintings. The character of Amrita comes out by showing various offering food to Buddha on the altar, Buddhist monks to perform the ceremony, books and ornament used for the ceremony. This is enough to become a standard of distinction between Suryuk paintings in China and Amrita paintings in Korea.